



주와 함께 주 앞에서
Cum Deo Coram Deo

1993-2026

주일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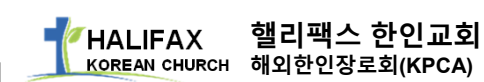
제35권 44호

1부: 오전 9:30 | 2부: 오전 11:00

2026. 11. 1

찬 양 / Praise	찬양팀 Worship Team
* 송 영 / Doxology	성가대 Choir
* 예배부름 / Calling	집례자 Presider
* 개회찬송 Opening Hymn	입례 (예배하는 자 되어) / 다함께 Together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함께 Together
기 도 / Prayer	이상진 집사
찬송과봉헌 Anthem & Offering	찬 43장 / 다함께 Together
광 고 / Announce	집례자 Presider
성가대 / Choir	먼저 그의 나라와 / 할렐루야 성가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느 1:1-11 / Neh. 1:1-11
설 교 Sermon	작은 관심, 역사의 시작 / 최병필 목사 Little Concern making a New History/ Rev. B P Choi
* 찬송/기도 Hymn & Prayer	은혜로다 / 다함께 Together
* 축 도 / Benediction	최병필 목사/ Rev. B P Choi
표는 일어서는 표시 (All Standing)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소서! 다음 주 기도: 조철기 장로

Mission Statement
진리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공동체



날짜	매일묵상본문	성경 일년일독본문
11월 1일 (주)	고린도후서 1 :1-11	요 1-3
11월 2일 (월)	고후 1:12-22	요 4-6
11월 3일 (화)	고후 1:23-2:17	요 7-9
11월 4일 (수)	고후 3:1-18	요 10-13
11월 5일 (목)	고후 4:1-18	요 14-16
11월 6일 (금)	고후 5:1-10	요 17-21
11월 7일 (토)	고후 5:11-21	행 1-4

예배 및 모임 안내

장년, 청년부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수요성경강해	오후 7:00	본당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청년부 (매주 Fri. 7pm) EM예배 (매월 2nd Sat. 4pm)		본당
교육부		
유아부 (2-4세)	주일 오전 11:00	유아부실
아동부 (P-G6)	주일 오전 11:00	아동부실
학생부 (G7-G12)	주일 오후 2:00	본당

교회 오시는 길

Halifax Korean Church

2021 Oxford St. Halifax
(Parking lot: Harvard St.)

www.halifaxkoreanchurch.org

Tel: 902-405-3499

온라인헌금: halifaxkoreanchurch.org@gmail.com

“윌리엄 존 맥켄지의 삶과 선교”를 읽고 – 양상렬

책을 읽으며 맥켄지와 비슷한 나이였을 때의 내 모습을 대비해 보았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헌신이라 말하기도 민망한 나의 10대부터 30대까지의 흔적들. 겉으로는 절대 순종과 감사,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과 세계 복음화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으나, 정작 그 안에 다른 생각과 목적이 섞여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선교사 맥켄지는 과연 어땠을까를 생각하며 책을 읽었다.

130여 년 전, 캐나다 교계에는 조선을 향한 선교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기에 맥켄지에게 미국 장로회를 통해 조선 선교를 떠나도록 권했다. 사실 이미 몇몇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그렇게 조선으로 건너가 있는 상황이었다. 나라면 못 이기는 척 그대로 했겠지만, 맥켄지는 달랐다. 혼자서라도 캐나다의 이름으로 후원자들을 모아 조선 선교를 떠나겠다고 직접 후원자를 찾아 나섰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선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그는 자신의 뜻대로 캐나다의 이름을 걸고 독립적으로 조선 선교를 떠날 수 있었다. 작은 소견으로는 그것이, 꼭 캐나다의 이름을 걸고 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이었나보다. 이미 앞서 떠난 게일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있었음에도 굳이 캐나다의 이름으로 떠나겠다는 것은 당시 교계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 만용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젊은 청년의 만용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던 그 행보가 결국 캐나다가 조선을 향한 선교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불씨가 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비록 그가 조선에서 선교한 기간은 2년도 채 되지 않는 559일에 불과했지만, 그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조선인들이 스스로 세운 소래교회의 초대 목사로 사역했다.

나로서는 역사책에서나 접했던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을 그는 직접 겪으며 살아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그는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 큰 체구로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옷, 주거 환경 속에서 외로움을 삼키며 소명의식 하나로 곳곳이 견뎌내고 사역을 이어갔다. 감사하게도 그 과정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리라.

맥켄지는 정말 한 알의 밀알로 살았고 죽었다는 표현이 적절한 인생이었다는 데 공감한다. 그 자체로는 참으로 고단하고 외로울 수 있는 삶이었으나, 그는 오로지 주와 함께 걷는 길을 살았다. 그가 남긴 흔적을 통해 캐나다가, 그의 동료들이, 그리고 결국 혼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지언정 한때 연인이었던 여인까지 조선을 품게 된 것 아닌가. 그의 행보가 일관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비록 그의 인생은 30대에 마감된 짧은 삶이었고, 직접 부양할 가족에 대한 책임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나의 상황과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의 삶을 살았다는 것, 어린 나이부터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과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부단히 애썼다는 것은 큰 귀감이 되었다.

예배 및 기도회

수요일예배 (고린도후서강해) 오후 7:00 2026. 11. 4

찬 양: 다함께
기 도: 김용재 권사
말 씬: 고후 7:10-16 “회복: 위로와 기쁨(2)”
다음주 기도: 김용재 권사

토요일새벽예배 (매일성경) 오전 6:00 2026. 11. 7

찬 송: 찬송가 300장
말 씬: 고후 5:11-21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최병필 / fistisb@hanmail.net / 902-410-3009
교육목사	서영준 / seoy9741@gmail.com / 902-877-8082
시무장로 은퇴장로	조충연, 최재천, 신동길, 조철기 정영국, 노효성
파송선교사	석대호(멕시코) 치말와칸(애릭/아드리아나)
협력선교사	김맛디아(모로코), 마사오/앤지(일본) 박태수(태국), 이상훈(중남미),

친교섬김

11월 1주 (11/1)	11월 2주 (11/8)	11월 3주 (11/15)	11월 4주 (11/22)
2-3 목장	2-4 목장	2-5 목장	3-1 목장

교회소식

1. 환영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 에티켓: 향수 주의, 음료반입금지(물 제외), 폰(진동 or Turn off)

2. 알림

* 2026년도 매일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합니다
(2026년 11-12월: 고린도후서, 시편, 이사야 / 성경읽기 1년 1독)
1) 정문 계단공사가 진행중입니다(다음 주일까지)
2)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halifaxkoreanchurch.org)
3) 2027 섬김 자원서가 오픈되었습니다(QR코드 참고) 
4) 각 기관 총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 치말와칸교회건축헌금: 12월 6일까지
(헌금란: 멕시코, 치말와칸)
* 임명 - 교사(아: 박현숙 / 학: 고현주, 신동민), 성가대(소: 정미라)

3. 기타 모임 (목장/기관)

1) 11월 01일: 목자/목녀 모임(Gym, 5pm)
2) 11월 6-8일: 청년부 수련회(Camp Kidston)
3) 11월 8일: 마리아 바자회 (걸절이 & 동그랑땡)
4) 11월 14일: 바울전도회(71-80년생, 토/11-2pm)

4. 새가족반 (주일 12:30~1:30, 루디아실)

2026-5차 새가족반: 10.18/10.25/11.1

5. 맥켄지선교관(McKenzie Hall): 셋째 주일 설명회(12:30-13:00)

맥켄지 북클럽 제 5기 수료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리모델링 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리모델링 되도록
환우들 건강회복과 이민문제로 어려움 겪는 교우들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 The Story of ‘Missio Dei’

In Halifax: 양로원 / Sunday Suppers / 공홀 / Mckenzie Hall

공홀사역(션데이씨퍼/어르신섬김)/양로원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맥켄지 선교관, 윌리엄 푸트선교사 복원 기념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Out of Halifax: 멕시코 치말와칸 & 네 선교지

치말와칸 교회 부지 매입과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예루살렘교회(페르난도 목사님)와 석대호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새로 섬길 네 선교지의 네 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교리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96문답

문. 성찬(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
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보이는 성례로,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육
체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
며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을 받고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며 은혜 안에서 자
라갑니다.

Q. What is the Lord's supper?
A.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wherein, by giving and receiving bread
and wine, according to Christ's appointment, his death is showed forth;
and the worthy receivers are, not after a corporal and carnal manner,
but by faith, made partakers of his body and blood, with all his benefits,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